

新潟伝道所에서
関永基牧師 委任式 挙行



閔永基牧師

閔永基牧師의 新渴伝道
所 委任式이 지난十月七
日(月)午後五時、日本基
督教團東中通教會에서
속히 舉行됐다.

鄭然元牧師의 司會 아래
金柄鎬牧師(浦和教會)의
祈禱、尹宗銀牧師(橫浜教
會)의 「인문에게 忠誠은
(본문과 같고) 전서四…」
五단 說敎가 있었다.

地方會長 慶惠重牧師(品川教會)의 司式、委任받은 閔永基牧師를 紹介、이어 委任받은 牧師와 敎友에게 誓約이 있은후 宣布가 있었다.	金龍煥牧師(東京第一教會)의 勸勉、靑年局長朴憲都牧師(西新井教會)와 春名康範牧師(敎团新潟教會)의 祝辭가 있었다.	春名康範牧師는 韓國말로 祝辭를 하여 모인이들에게 感銘을 주었다.	新潟伝道所 信徒가 牧師에게 記念品을 贈呈하고 委任받은 閔永基牧師가 感謝의 答辭를 했다.	閔永基牧師의 祝禱로 委任式을 마쳤다.	委任받은 閔永基牧師는 一九四九年二月十一日、서울에서 出生. 韓國航空大學(一九七三年)을 卒業、空軍에 復務. 長老會神學大學院(一九八五年)을 卒業한후、서울明聲教會 伝道師로 奉職. 一九八七年二月 大韓에수敎長老會東南老會에서 牧師按手를 받은후、明聲教會 副牧師로 赴任.	서울明聲教會의 支援으로 一九九〇年七月 日本
---	--	-------------------------------------	--	----------------------	--	-------------------------

宣教師로 派送받아 新渴에 赴任했다.	新渴 關東地方會 主管으로 赴任했다.
閔永基牧師는 新渴에 赴任後 日本基督教團東中通教會에서 開拓伝道를 시	新渴教會는 在日同胞, 駐在員, 本國에서 結婚해 온 婦人들로 成長하고 있
다. 同年十月, 創立禮拜를	다.

浜松教会が奉獻式

35周年記念式도 同時에

浜松教会(担任 朴茂樹
 牧師)創立三十五周年記念
 禮拜堂 奉獻禮拜가 十
 一月十日、中部地方會 教
 役者、信徒、日本教會 代
 表等 百二十余名이 參席
 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
 되었다.
 朴茂樹牧師의 司式、李
 建豪長老의 祈禱、盧政一
 牧師의 聖書奉讀(마태
 六·十三—二十) 地方會長
 李應周牧師의 「하나님의教
 會」란 題目의 說教가 있
 었다. 金永秀牧師의 教會
 略史報告、永樂教會海外宣

神戸教会 創立70周年記念式挙行

全奎長按手執事와 金福分, 崔玉同勸士の
任職式도 同時에

勸士 任職式	舉行되었	七年	全奎長長老의 廣告, 韓東
前札拝叩	全奎長接手執事	十月三十日	創立, 一九二
及 金福分、崔玉同兩人的	神戶教會亡	一九二一年	閉會했다。
十七日、神戶教會에서	牧師의 祝禱로	開會했다。	
宗教改革主日인	十月二		

고 午後三時三十分 當敎
會七十周年記念式이 來賓
等二百六十余名이 參席中
盛大하게 舉行되었다。
辛鐘國牧師의 司式、李
聖雨牧師의 祈禱、朴光用

牧師의 聖書奉誦(詩篇二
三篇) 韓命東牧師의 「不足
함이 없는 삶」의 說教가
있었다.

李炳春長老의 七十年略
史 朗誦, 功勞碑 및 禱
告贈呈, 西部婦人會聖歌隊
「주 讚揚歌」의 特別讚
揚이 있었다.

崔昌華總會長、李昌雨牧師(地方會代表)、長老會代表、俞錫濬名譽長老、尹宗銀牧師、教團·兵庫教區議長、東島勇氣牧師、金安弘總務等的祝辭가 있었다.

創立70周年を 맞아 記念式を
 가진 神戸教会와 그 會員들



青年会関東連が秋季修養会行う

「今日を生きるキリスト者青年」テーマに30名参加

関東地方会青年部、青年
会関東地方連合会の共催に
よる秋の修養会が、九月二
十二・二十三両日、湖北寮
において開催された。

「今日を生きるキリスト
者青年」——クリスチャン
の私生活——をテーマに講
師に金永秀牧師を迎えた。

修養会は、参加者三十名
(内青年二十名)の参加者
が集い、楽しく、又まじめ
に修養会は進められた。連
休のため道路の混みがひど
く、参加者のほとんどが時
間通りに到着できず、プロ
グラムの変更をせざるを得
ないハプニングがあった。

久しぶりの修養会というこ
とを考えると、まずは成功



浜松教会創立35周年
教会堂奉献式

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

反省として、プログラム作りには青年部の力に甘えてしまったこと。課題として二十名の青年の内、十二名が本国の留学生で、語学上うまく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なかった。等が挙げられる。たくさんさんの経験と失敗をしながら、少しずつ前進しようとする関東地方青年会を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通信 田光浩)



30名が参加して行われた
青年会関東連秋季修養会

胞人權問題、九・一問題等
 에 對한 호소문을 本國五
 敎團과 함께 実印을 積은
 後에 政府와 與野黨、日本
 大使館에 傳達하면서 在
 日同胞法의 地位問題、九・
 一問題등을 밝혓습니다。
 이에 앞서 婦人會全國連
 合會가 앞장서서 本國五
 敎團과 韓國基督教連合會
 二四團體의 이름으로 政
 策建議書를 發表하였으
 며 在日同胞法의 地位保障을
 爲한街頭 署名運動도 벌
 였습니다。 또한, 青年會들
 中心으로 入管法改惡防止斷
 食鬭爭도 하였습니다。 當
 時 積極의으로 協助해주
 신 日本基督教敎人 여러분
 에게 感謝를 表합니다。
 日本人基督教者와 市民의 協
 力教會의 人材養成을 爲
 하여 個敎會와 神學校가
 積極의으로 後援함을 感
 謝하오며、現在 本國에 留
 學中인 在日同胞學生들을
 爲한 宣敎를 구상하는中
 에 있으니、앞으로도 많은
 助言과 協助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韓·日四敎團(日本基督
 敎團、基督教大韓監理敎會
 大韓예수敎長老會、韓國基
 督敎長老會、宣敎協議會가
 一九九〇年二月六日(八日
 서울一〇〇周年記念會館에
 서 있어、本總會는 방청인
 으로서 參加하였으나、앞
 으로의 正式加入에 對한
 件도 討議하였고、宣敎協
 約推進을 爲한 相互努力을
 다짐하였습니다。

二、人權運動

第四〇回 定期總會에서 「九一年問題에 関한 要望書」를 採択하여 法的地位委員會가 中心이 되어 在同胞의 法的地位, 指紋捺印拒否等의 問題를 우리 敎會와 本國의 五敎團, 日本基督敎團, NCC J, K NCC, 海外敎會, 市民運動團體와의 緊密한 連帶 아래서 推進해 왔읍니다. 盧泰愚대통령의 訪日에 앞서 本總會代表들은 在日同

이 아닐까 합니다.

三、本國 五敎團과의 關係

一九七四年以來 在日大韓基督敎會總會와 本國五敎團과의 協力關係가 날로 密接해지고 있으며 在同胞宣敎에도 크게 関心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特히 本國 三敎團이 本總會를 爲하여 宣敎自立基金을 完了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本國敎會가 우

総務総括報告 ②

主題「모든 것을 다하여
함께 福音에 參與하자」

弘安金務總

力을 얻으면서 우리總會가 指紋拒否鬭爭을 앞장서서 한 結果 日本政府는 法律改定을 거듭하는 中에 指紋捺印法 撤廢까지 하게 되었음은 큰 成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實質으로는 아직 도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을을 再確認하여, 繼續해서 在日同胞의 人權獲得運動을 爲해 全力을 기울여야 하며, 現在 法定鬭爭 中인 분들을 爲해 積極的인 支援과 激勵을 보내어 勝利로 이끌도록 도와 드리는 것이 우리의 使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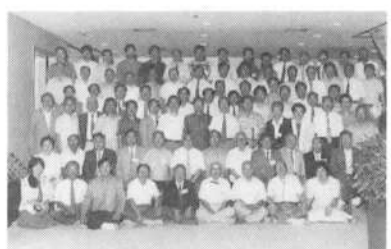
祝
聖
誕

[illegible]



●朝鮮基督教徒聯盟 交流
금년도 朝鮮基督教徒聯盟 代表四人이 總會 招請으로 渡日했다.
「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작은 교류이나 巨人的 발자욱으로 남겨질 것이다. 聯盟의 앞길에 주님의 祝福이 있기를 祈禱한다.

●教役者·長老研修會
教役者·長老研修會가 毎年 여름에 開催.
教役者는 本國派遣宣教師가 많고 長老는 二世가 많고 傾向이 있다. 新一世가 점점 많아지는 教會의 現況가운데 教役者·長老研修會는 이 實態에 맞는 宣敎政策樹立의 必要性 切實.



●總會代表 訪北
金榮植 會長을 團長으로 第二次訪北團이 平壤訪問. 朝鮮基督教徒聯盟과 交流, 親戚도 訪問. 敎團의 人 次元에서 繼續해서 訪北團 派遣은 本總會로 韓國旅券으로 訪北한 것도 첫일. 二時間이던 간수 있는 곳을 北京經由는 나무 던길. 三次는 直行하도록.

●全協夏期修養會
敎會靑年은 在日總會를 젊어지고 나갈 일꾼들. 많은 課題를 안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既成世代는 積極的인 後援이 있어야.
本國에서 온 靑年들과의 만남이 全協의 活性化. 脫日本化. 積極性 되는 靑年運動의 展開가 課題.



●婦人會全國聯合會
婦人會의 宿願은 老人 肅建設. 數十年의 夢이 現實이 되는 그날을 婦人會는 斷斷 아니라 全敎會가 期待.
婦女局은 敎材作成을 推進. 婦人會의 成長·成熟은 敎會發展의 尺度. 三世 本國現場研修等 繼續事業 積極推進 實施 要.

●定期總會 開催
第四十一回定期總會 無事히 閉幕. 宣敎政策樹立보다 選舉總會로 一貫. 新世代를 위한 宣敎, 新一世, 二世, 三世代로 形成되는 敎會를 하나로 묶어바라진 敎會像을 모색하는 때. 一致를 위한 敎會形成이 時急. 따라서 百敎會 達成도 重要課題.



1991 寫眞으로 보는 日 韓 敎會의 現狀



●一·一五集會
第五回 外登法の 根本改正을 要求하는 全國基督教徒集會가 敎團·弓町本郷敎會에서 開催.
外國人에게도 當然히 프라이마시의 權利가 保障되어야 하며, 指紋制度는 이 프라이마시 權利의 侵害라고 奧平康弘敎授(國際基督教大學)는 指摘.

●二·八獨立宣言
三·一獨立宣言 運動의 先驅的 役割을 한 二·八獨立宣言 七十二周年紀念式이 있었다.
在日同胞는 歷史를 繼承·創造해 나갈때 이곳에서 사는 使命이 있다. 歷史意識을 갖고 살아갈 때, 在日韓國人은 歷史속 에 存在할수 있을 것이다.



●世界敎會의 韓國 WCC第七次總會가 호주·캔버라에서 열렸다.
「聖靈이여 오소서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主題 아래 WCC總會는 南北統一에도 많은 關心을 보였다.
WCC는 中國敎會의 加盟으로 和解·平和·一致를 具體적으로 보였다.

●韓日靑年協議會
韓國敎會는 靑年運動이 活潑한데 비해, 日本敎會나 總會·全協은 침체狀態에 있는 實情이다. 交流를 통해 아세아의 視點에서 兩敎會 靑年들이 指導的 役割을 할수있다면 以上 바라는 것 없을 것이다. 既成世代는 이런 次元에서 靑年을 보아야.



●總會神學生研修會
우리總會는 直屬 神學校가 없어 敎役者 養成을 日本敎會에 依存하고 있다. 日本敎會들은 數名의 神學生을 위해 많은 財政的 投資을 하며, 敎役者를 輩出하고 있다. 神學生研修會는 이 欠點을 補充하는 貴重한 모임이다.

●平和統一東京會議
分斷·共存·統一이란 統一을 向한 단계에서 今年은 共存時代에 들어갔다. 共存이 分斷固着化해선 안된다. 統一을 위한 準備時代이다. 平和統一東京會議는 統一을 위한 基督教의 重要한 모임이다. 이 聖스러운 課業에 同參함은 總會의 榮幸이다.



青年會全國協議會			
代表委員	尹 日 鉉	總 務	崔 日 鉉
研究部	曹 鐘 旭	西南地方會長	徐 承 旭
宣道部	梁 釀 一	中部地方會長	田 光 浩
出版部	玉 光 錫	財政部	高 基 安
財政部	黃 世 錫	會計監查	李 尹 南
會計監查	徐 炳 順	會計監查	李 尹 南

外登法の技本改正を求める
一·一五集會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國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外キ協)では、在日韓國人問題を日本の敎會の宣敎の重要課題として受けとめ、外キ協を組織、第六回目的の一·一五集會を次のように開きます。
◇大衆集會
日時：一九九二年一月十五日(例)午後三時～五時半
場所：大阪女學院(ヘールチャペル)
説教：中島義和(日本バプテスト連盟関西地方連合會會長)
講演：松井やより(朝日新聞社會部編集委員)
◇協議會
日時：一九九二年一月十三日(例)午後七時～十五日(例)正午
場所：大阪カトリック神學院
講師：樺野守(在日・日韓連帶委員會委員長)
(主催)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全國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関西キリスト敎代表者會議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北海道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の技本的改正を求める関東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の技本的改正を求める神奈川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中部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近畿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問題と取り組む四国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外登法の技本的改正を求める九州・山口キリスト敎連絡協議會
(事務局)
○在日韓國人問題研究所内(TEL:011-377575)

婦人會全國聯合會			
會長	金 貞	副會長	朴 善
書記	金 福	副書記	李 光
會計	崔 和	副會計	徐 貴
宣道局長	徐 茂	宣道局長	徐 茂
教育局長	姜 順	教育局長	姜 順
靑年局長	崔 明	靑年局長	崔 明
社會局長	崔 子	社會局長	崔 子
財政局長	尹 南	財政局長	尹 南
會計監查	李 尹	會計監查	李 尹
總務	徐 炳	總務	徐 炳

西南地方會			
會長	李 海	副會長	李 聖
書記	李 根	副書記	李 秀
宣道部長	崔 正	宣道部長	崔 正
社會部長	崔 昌	社會部長	崔 昌
靑年部長	李 根	靑年部長	李 根
財政部長	金 長	財政部長	金 長
會計監查	安 秀	會計監查	安 秀